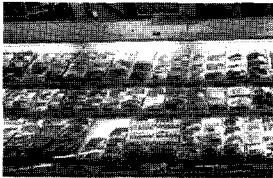


출처 : World Poultry

미국

식품안전법 개정



미 의회는 오래된 식품 안전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회 농무 소위원회(House Agricultur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위원회장인 DeLauro 위원장은 50년만에 개편하는 식품 안전법에 대해 “육제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 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가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코네티컷 민주당원인 DeLauro 위원장은 “올해 안에 식품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FDA(미국 식품의약국)에 법적 회수 권한을 주고, 육제품 검사 횟수를 늘리며, 제조자에 식품 안전 관리 계획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현재 육류, 가금류, 난류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 농무부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기관을 통해 미농무부의 이러한 식품안전법 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한 후에 FDA에 대해서도 유사한 검토를 하게 된다.

미 하원에서는 지난 7월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 상원에서 입고한 의료보건법 개정으로 지연되었으며, 개정법이 무역 협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미국무역대표부에 의해서도 지연되었다고 DeLauro 위원장이 말하며, 무역이 국민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식품 안전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DeLauro 위원장은 앞으로 두 달간 새 무역법이 식품 안전 조항이 포함해야 하는지 검토를 거치게 된다. “수입되는 육가공품 등 식품들의 제조과정과 제조원이 미국 내 가공업체와 동일한 기준 하에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DeLauro 위원장은 입장을 밝혔다.

